

남성 정치판 희생양 만들지 마라

장상 총리서리 국회 인사청문회 초읽기 돌입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 등 대응 모색



7월 말 장상 총리 서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성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에 환영을 아끼지 않았던 여성계지만, 7·11 개각날 이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장상의 이중국적 문제, 땅 투기 의혹, 김활란상 제정과 94평형 아파트 논란 등 총리서리의 개인사 문제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전문과도 같은 위기의식이 전 여성계를 휩싸고 있다.

여기에다가 여야가 장 총리를 둘러싸고 수십년간 지속돼

오던 정치 관행인 '총리서리'의 합법성을 새삼 거론하면서 법적 지위 논란을 거듭했고, 급기야는 한나라당이 총리 예방을 거절하면서 총리로서의 권한과 직무 정지 요구를 해왔다.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총리서리를 마지막 관행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외활동 자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상 총리의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함으로써 장 총리는 물론, 여야의 총리 인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여성계는 장 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8.8 재보궐선거와 연말 대선을 겨냥한 정쟁적 의도가 강하다고 내심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않게 진행되자 7월 12일 '21세기 여성포럼' 정기 모임에 모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자연스럽게 모색됐다. 이어서 15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의 고회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 가닥을 잡아나갔다. 그리고 17일 제헌절날, 휴일도 잊은 채 논의를 거듭, 밤 늦게 최종안을 확정했다.

7월 22일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최초의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모임'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려졌지만, 함께 하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7월 18일 현재 고은광

순, 곽배희, 김경오, 김운옥, 김현자, 류숙렬, 손덕수, 손봉숙, 신숙희, 신혜수, 은방희, 이강실, 이길녀, 이미경, 이범준, 이오경숙, 이유명호, 이춘호, 이현자, 정광모, 정현백, 조배숙, 조선형, 지은희 등 여성계 지

도자 50여 명이 여성모임에 정식 이름을 올렸다(가나다 순). 특히 이 모임엔 전직 각료 경험을 통해 직접 여성각료의 어려움을 체득한 강기원, 김영정, 김정례, 백경남, 신낙균, 황산성 씨 등이 참여해 더욱 더 의미를 깊게 한다. 행사 하이라이트는 강원용 목사, 김모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이경숙 숙명여대 총재 등으로 예정된 '원로에게서 듣는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 이후 여성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3당 방문과 국회 인사청문회 방청이 총리 인준을 위한 지원작업으로 계획돼 있다.

행사를 총기획한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가장 고민한 부분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행사의 명칭이었다며 "환영, 지지, 격려 등의 표현을 자제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결과 행사 명칭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말에는 여성계의 고민과 딜레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련기사 2면>

박이은경 기자 plek@iwomantimes.com



꿈은★이루어진다!!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운동이 중고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여중생대책위 청소년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희망의 빨간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추모제를 열었다.<관련기사 22면> 여중생들의 화성이 불평등한 SOFA 개정의 물꼬를 트길, 아울러 '여성' 총리 임명으로 여성정치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 장철영기자>

여기저기서 '최초 여성' 탄생

군 보직 늘고 해양부·철도청 등 포진

여성 공무원들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던 분야에 보직을 받는 "최초 여성 공무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청 첫 여성경위 탄생(박경순), 병무청 9급 출신 첫 여성사무관(최은순), 특허청 첫 여성이사관(김혜원) 등

구의 첫 여성인사팀장(염형순), 특전사 707대테러 여성팀장(상사 최애순), 해양수산부의 첫 여성부두계장(이정희)·어촌지도관(임매순)까지 이제 여성이 활동하지 못할 분야가 없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여성 최초로 보직을 받은 경우는 또 지난 6월에 김천세무서

이 탄생했고 7월에는 철도청 청량리 열차 사무소에서 첫 여성여객전무(이은진·이은난)가 나왔다. 공기업 KT에서도 최초로 여성임원(팀장 이영희)이 탄생했다. 지난해에 최초로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성선거관리위원(김영란 판사)이 임명된 것도 크게 주목받은 경우다. <관련기사 3면>

최수애 기자 csa@iwomantimes.com

제왕절개 대안 '조산원'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그 대안으로 조산원이 주목받고 있다. 100% 자연분만을 하는 조산원은 병원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아기와 산모를 중심으로 한 진료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출산'과 가족분만을 전제로 한 르바이에 분만은 조산원의 기본 원칙. 대한조산협회 서란희 회장은 "산모가 편안히 느끼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관련기사 14면>

이선민 기자 min@iwomantimes.com

금주의 여성



8·8 보궐선거 출마하는 전재희 의원 <관련기사 2면>

CONTENTS

- 4 기획특집
보양문화 개선하자
- 6 오피니언
특별 기고 · 장상 총리에 대한 고민과 기대
- 9 프라우드 우먼
쌈지스페이스 김홍희 관장
- 11 문화
박정희 전대통령 소재 오페라 준비중
- 12 레저 & 스포츠
진짜 여행가들이 말하는 여행 체크 포인트
- 15 Life & Style
여자들만의 작은 가게 그러나 큰 미래
- 16 여성과 경제
토요일 은행 일 이렇게 하세요
- 17 여성과 경제
'산업포장' 안희정 (주)사라 사장
- 19 네트워크
제13차 21세기 여성포럼의 즐거운 외침
- 20 환경
휴가철 환경보호 실천, 이렇게
- 21 교육
캠페인 · 행복한 가족 건강한 교육
- 22 사회
자궁적출수술 건수 세계 수준, 누구 탓인가?
- 23 사회
긴급 르포 ·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현장

정
치

장상 총리서리 논란에 대한 여성계 의견들

‘첫 여성총리’ 의미 허물지 마라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건국 50여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가 지위도 함께 높아졌다. 여성을 국정 제2인자로 내정함으로써 여성역사를 바꾼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한다.

장상 총리서리의 아들 문제 논란 등은 그의 성공적 대학 운영 경력으로 보건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합심해 장상 총리서리가 구김살 없이, 한 점의 오점도 없이 당당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힘껏 그를 밀어줘야 한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 인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낙관하지만, 권위에 손상이 갈까봐 우려된다. 총장 위치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맡다 보니 상황판단이나 언론 대처를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첫 여성 총리로서 나무랄 데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우선 당장은 다가올 국회 총리 인

이번 여성 총리 지명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더구나 아시아의 여성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입신 출세했는데, 장상 총리서리는 엄연히 자수성가한 분 아닌가. 한국처럼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전경옥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소장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들었는데, 대통령 임기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시점에서 총리 지명을 받아서 한편으론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논란과 난관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이를 통해 다음 여성 총리는 좀 더 여유있고 유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애주 여성학자

장상 총리서리가 꼭 정식 총리가 돼야 하고, 또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획기적으로 여성정치 물꼬를 튼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공격적인 태도는 인물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면을 들어 흠집을 내고 끌어 부수려는 속성에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속성에 원인이 있는 만큼, 여성계 인사들을 비롯해 여성들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좀 더 침착하게 언론 대응을 했으면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여성들이 언론 대처법을 심각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유지나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도대체 공격의 일관된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모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데까지 털어내 보자.

장상 총리서리의 허위 학력 운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이 높는데, 왜 그렇게 도덕성 시비로만 몰아붙이는가. 내 경우만 보더라도 파리 제7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는데, 간혹 흔히 ‘소르본느’라 불리는 파리 4대학 출신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학제상 낯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들 한국국적 포기 문제만 봐도 서튼이 다된 아들이 4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준비된’ 여성이 돼가는 것 아닌가.

장상 총리에 대한 공격 면면을 보면 가부장적 폭력성과 연좌제적 성격을 짚게 볼 수 있다. 그를 총리로 임명한 기준은 공적 수행 능력이지 개인 사생활이 아니지 않은가.

반면 얼마 전 끝난 월드컵으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이방인 히딩크 감독에게는 왜 그토록 너그러운가.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애인과 버젓이 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성들에게 ‘총’을 겨누게 되나보다.

박옥희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발행인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됐던지 간에 시끄러웠을 것이고, 정쟁의 희생물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장상 총리서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성이기에 더 문제삼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이 이 어려운 때에 참신한 ‘대안’으로 선택됐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또 자부심을 가진다.

정리=박이은경 기자 plek@iwomantimes.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준
통과하기를...

정광모



은방희



손봉숙



이춘호



신혜수



전경옥



추애주



유지나



박옥희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공정한 시각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인격을 흠집내기 위한 트집이어선 안된다.

여성 총리서리의 탄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한 여성 지도자가 어려운 벽을 넘어 정치·의사 결정 최고위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패거리에 대해 ‘얼굴마담’이란 식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모욕을 느끼게 한다.

준에 전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들이 유리 천장을 뚫는 데는 늘 예외없이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그래도 자신감이 솟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 공직 임명자를 집중적으로 흠집 내는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공직자 자기관리의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지 임명될 때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을 끄집어내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여성의 사회·정치 발전을 위해

‘단지 여성이기에’ 혼드는 것 국민들이 가만 두지 않는다

개각 이튿날인 12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 유고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방을 모르는 여성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란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고 이회창 대선후보 비서실장직을 사퇴한 해프닝은 여성들에게 의미가 컸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팔 걷어부치고 여성후보를 지원, 부산 남구청장에 당선시킨 공도 있어 일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삼 남성들의 무의식에 은연중 자리잡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성차별적 사고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국정 제2인자로 여성이 총리가 되면 공직사회 성희롱이나 부패한 접대 문화는 자연스럽게 일소될 것이다. 또 총리 입

장에선 여성의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여성운동의 맥락을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긴밀하게 여성계와 교류해야할 것이다. 취임 인터뷰를 통해 ‘내가 여성이어서 발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성계는 일반 국민들에게 ‘단지 여성이기에’ 면죄부를 준다는 ‘뺨목적 집단’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여성계도 정치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정옥 대구효성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의 제언이다.

16일 발표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치권은 총리 임명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성명서는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총리서리에겐 논란 사안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쾌한 답변과 함께 필요하다면 해명과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길 주문했다. 성명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편들기를 할 생각도 없지만,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흔들림을 당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총리에 대한 평가가 성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써 끝을 맺고 있다.

중앙 일간지들은 장 총리와 대통령 부인 이회호 여사와의 학연을 강하게 암시하는 만화를 게재하는가 하면, ‘파안대소하는 장상 총리서리’란 제목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을 예방해 ‘백담사로 쫓겨갈 때 기자회견했던 곳’이란 전 전 대통령의 설명에 웃는 모습을 포토뉴스로 실어 묘한 위양스를 풍겼다. 17일 한 일간지는 표지 사진으로

상단엔 집집마다 국기가 걸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방송 여론조사, 국민 4명 중 3명

“여성 총리 임명은 잘한 일”

단지를, 하단엔 아직 국기가 안 걸린 서울 장 총리의 아파트를 친절하게(?) 붉은 선을 둘러 대조시켜 보여줬다. 제목은 ‘제헌절 국기 게양 않은 총리지명자 아파트’(장 총리 주변 아파트들에도 국기는 내걸리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10시쯤 장 총리 아파트에 국기가 게양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17일 SBS TV 8시 뉴스의 여론조사 보도는 이번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본 여성들에게 일말의 위안을 주었다. ‘개각은 불만, 여성총리는 잘한 일’이란 제목 아래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74.3%가 찬성,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논란이 발발 격화되고 있었던 15, 16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박이은경 기자